

순정이

연중 제25주일

제 1 독서 : 이사 55, 6-9
제 2 독서 : 필립 1, 20 c-24, 27 a
복 음 : 마태 20, 1-16 a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습니다”
(마태 20, 4).

강론

소리

순교자 공경의 허(虛)와 실(實)

희망과 여유

김진 소신부 / 호남교회사 연구소

한국교회는 순교자 성월이 아니더라도 순교선조들에 대한 공경을 일상화해 가고 있다. 이런 현상에서 순교자에 대한, 올바른 공경을 하기위해 다시 생각한다.

순교는 무엇일까. 인간의 생활과 경험을 들어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심도가 깊을 수록 사랑하는 대상에 사로 잡히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의지와 욕구, 힘과 정열을 거기에 쏟고 만다. 비록 어떤 고통과 죽음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의 고통과 죽음속에 있게 된다. 순교는 인간의 체험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순교자는 오매불망 하느님과 천국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쳤고, 그 사랑이 정신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독차지 했다. 순교자는 하느님과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드러내는 만고(萬古)의 증인이다.

선인(先人)의 말에 이(利)만 보고 해(害)를 못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훈계를 기억하며 순교자에 대한 공경의 표현을 반성해 보자. 수 많은 사람들이 성지를 순례하고 있고 전국 성지 어디에나 만남을 무릎쓰고 엄청난 돈을 드려 기념물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일은 하등 나무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지순례는 순교정신을 생활화하고 체질화하려는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지에 세우는 기념물도 그렇다. 자연은 하느님이 주신 가장 완벽하고 귀한 선물이다. 그러나 성지개발의 명목으로 무지 막지하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인위적(人爲的)인 건물을 짓고 있다. 인, 위 두자를 합하면 거짓위(僞)자가 된다고 한다. 참 민망한 말이지만 어떤 역사가는 이런 글을 썼다. 우리 민족이 허풍뎡고 허세부리기 좋아한다는 약점을 지적하면서 르네상스 시대에 어떤 교황은 신심이 줄어들 갈수록 성당은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세겨 볼 말이다. 이런 경향과는 달리 교회사업에 성지가 희생되는 것도 경고해야 한다. 교회는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순교자의 역사를 소홀히 하거나 단절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를 모를 사람은 없다. 하필이면 루터의 말을 인용하지만 그는 역사를 멸시하는 것은 조잡한 야만주의요, 하느님의 올바른 지식을 쪼먹는 무지라고 갈파(喝破)한바 있다. 반성하고 생각하는 생활없이 순교자를 올바로 공경할 수 없다.

지난 17일자 신문의 체육면에 실린 한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놀라움과 함께 통일의 앞길에 대한 큰 희망을 안겨줬다.

남과 북의 포용-북경대회에 참가한 한국사이클팀 감독과 북한팀 감독이 만나 활짝 웃으며 열싸안고 있는 장면이었다. 사진아래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16년전 어느 국제대회에서 맞수로 만났을 때 내키지 않는 악수로 인사를 대신했던 사이.

이들과 자리를 함께했던 남북선수단은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점심을 함께 먹은뒤 합동훈련까지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남한팀 감독이 북한팀 자전거를 손질해 주고 북한 선수들에게 경기기법까지 코치해줬다니 얼마전만해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사건'이 아닌가 싶어졌다. 앞으로 남북의 대회참가자들이 경기장에서 상대팀을 서로 힘껏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을까 기대해본다.

올해년 홍수이후 가장 큰 수해로 알려진 수도권 수계를 중계해주는 텔레비전 화면에서도 희망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길을 헤엄치듯 헤쳐가면서도 조금도 당황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까지 머금은 여유있는 표정의 시민들이 많았던 것이다.

당장의 고통만이 아니라 물에 잠긴 주택과 물이 빠질때까지의 궁색한 생활을 상상한다면 결코 그같이 밝은 모습일 수는 없을 터인데 어쩌면 저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였다.

엄청난 재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것은 민초들의 힘이 그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신**

순정이 산책



우리 고장의 성지

—미처 순례하지 못한 성지는 없는가?

순교자 성혈을 맞이하여 순례행렬이 줄을 잇는다. 멀리 미리내, 천진암, 해미, 베론등 우리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바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러나 우리 지역의 성지는 그냥 지나치면서 먼곳의 성지를 찾아 헤맨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태도 이리라. 이에 우리 지역의 성지를 간단히 소개한다.

1. 치명자산 : 이 루갈다, 유 요한과 그 가족의 묘(6~7인 합장, 지방기념물 68호).
2. 천호성지 : 4분 성인과 10분의 무명 치명자, 순교자 김영오(아우구스티노)의 묘(완주군 비봉면).
3. 숲정이 : 천주교 신자들의 처형장(지방 기념물 71호, 해성 학교 뒀).

4. 전동성당 : 남문 밖, 유항검, 윤지충, 권상연 등의 처형장.
5. 서천교 : 성 조윤호의 장사터(현, 서천교).
6. 초록바위 : 나이 어린 교우들을 수장(水葬)시킨 곳(서화동 파출소 옆산).
7. 나비위 성당 : 김대건 신부의 첫 상륙지(익산군 망성면).
8. 초남이 : 유항검, 이순이, 유충철 가족의 본가(이서면 남계리 초남).
9. 여산 숲정이, 동헌 백지사터 : 여산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의 고문터, 사형터.

그 외에도 우리 순교 선열들의 신앙과 삶을 말해주는 많은 곳들이 순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성지동, 대성등을 비롯한 되재, 모시골,.....골짜기 골짜기마다 초라하게 남아 있거나 폐허가 된 공소들은 참 신앙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해 줄 것이다.

■ 전주교구의 성인들 ③

성 이명서와 성 한원서

○ 성 이명서(베드로, 1820~1866)

일명 '제덕'으로도 불렸던 그는 충청도 태생으로 박해를 피해 여기 저기 유랑하다가 1866년 병인 박해가 일어나기 몇년전 전북 완주군 소양면 교우촌인 성지동에 정착하였다. 성품이 어질고 온순하여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나 심장병을 앓고 있던 환자였다. 세태가 그러했는지라 언제나 순교할 준비를 하며 살았던 것 같다. 잡히기 며칠전에 피신하자는 다른 교우들의 제의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한다. "사정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곧 피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런병이 있어 기동도 힘들지만 며칠 안되어 천주님께 불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병도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1866년 12월 5일 저녁 포졸들이 들어닥쳐 "너 천주학쟁이지?"하며 닥달하자 그는 아니라고 거부하였다. 하지만 곧 누우치고 "아까는 무서워 그랬지만 나도 천주교 신자입니다"하고 고백하고 불들렸으나 또 다시 환자이고 처자식을 봐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이러한 그의 심약한 성품을 보고 맨먼저 배교하도록 고문을 가했으나 의외로 "내 수십번 죽는다고 해도 천주를 따를 것이요!"라며 그 모진 형벌을 이겨내고 1866년 12월 23일 숲정에서 순교의 영광을 차지 하였다. 처형장으로 가는 도중 성인은 "이 행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회일에 넘친 탄성을 질렀다 한다.


○ 성 한원서(在權, 요셉 1835~1866)

일명 '원익'이라고도 불리며 태중 교우로 충청도 진잠에서 살다가 박해를 만나 전라도 다리실(천호)로 피신했다가 다시 대성동 신리골로 이사하여 살았다.

1866년 12월 5일 포졸들이 들어 닥쳤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작을 패고 있었다. 결국 전주감영에 갇히게 되었고 많은 고문을 당해야 했다. 육신에 고통을 주는 유혹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온가족, 특히 아버지의 끈질긴 구명 운동을 뿌리치기가 더 힘들었다. 아버지는 박 별감이라는 사람을 중간에 넣어 감사에게 뇌물을 주고라도 아들 원서를 석방 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끝내 배교를 거부하는 요셉을 무작정 내어 줄수는 없었다. 감사는 "그 한(韓)가가 서양교를 좇지 않겠다고 말하면 풀어주겠지만, 죽을지언정 배교할 수 없다고 되풀이 하고 있으니 어찌 석방하겠는가"하며 박 별감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떠나더라도 아직 형제가 여럿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꼭 붙잡아서 순교하려 합니다"하며 아버지를 위로하고 같이 갇혀있던 동료들과 함께 1866년 12월 13일 숲정에서 참수 되었다.

※ 위 두 성인은 모두 천호에 묻혀 계신다(이명서 성인은 진안 어은동 모시골에서 이장).

해 외 여 행
(성지순례 · 신혼여행)
고 려 관 광
이 종 길 (요한)
☎ 87-9797
(기림로 병무청 시거리)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늘부보쌈**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불 교 (마카엘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 ~ 8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띠도
☎ 84-2628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 · 수화 | 춘매점(공정직영)
아동화 · 특수화
김 문 식 (베드로)
☎ 82-3118
풍남문 · 조관 · 송악로 시거리

잡 관!

수재민들에게 희망을

연일 보도되는 수해 소식을 보고 있노라면 그 참담한 장면에 할 말을 잇는다. 어이가 없다. 그리고도 우리 인간이 자연을 지배 한다나...? 가소로운 말이다. 인간 역시 극히 미소한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산을 오를 수 있어도 정복 할 수는 없다. 물을 이용할 수 있어도 지배 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증명 해준다. 자연 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급변 홍수는 너무도 건방진 인간에 대한 자연의 보복처럼 느껴졌다. 아니, 인간의 제주 같은 것은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밭, 집위를 그저 유유히 쓸고 지나가는 큰물 속에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 보였다. 그 엄청난 재난(災難)이 어찌 그들의 죄인가? 우리 모두의 잘못을 그들에게만 지을 수는 없다.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급변 이상 기후가 대기 오염에 의한 지구의 '온실효과' 때문이라면 우리 모두가 공범이다. 또 실사 그 수해의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일지라도 불의의 재난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형제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랑의 의무에 예외 일 수는 없다. 그들을 위한 기도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억지를 부려서도 안된다. 참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쓰고 남은 것을 내놓기 보다는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저 형식적인 헌금이 아닌 가진 바를 나누는 행위로 헌금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는 '보속의 행위'와 우리가 수재중에 도움받았던 감사의 헌금이라면 더욱 바람직 하겠지만...

* 오늘(23일) 2차헌금은 수재민 구호금을 위한 헌금입니다.

교 구 소 식

- * 축! 서용복 신부님 은경: 26일(수) 오전11시 인후동 상당.
- * 축! 견진: 신동성당-23일(일) 오전10시.
- 1. 참사회 및 재무평의회: 25일(화) 오전10시 장소-교구청.
- 2. 혼인강좌: 30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5,000원.
- 3. 성지순례 안내 봉사자 모집: 교구내 성지순례를 안내할 봉사자를 찾습니다. 휴일 및 주일 봉사는 더욱 환영합니다(봉사-수고료 지급)문의-교구청 홍보국 85-0041 인증계속모집.
- 4. 마리아니스트 성소피정: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10시, 문의(02)334-8547(성소담당자).
- 5. 교구사제 주교님배 친선 테니스대회: 24일(오전10시) 코오롱코트장.
- 6. 가톨릭사회복지회 초대잔치: 23일(오늘)구 성모병원3층.
- 7. 전화번호 · 주소 변경: 서산동 성당-사무실 74-9260 사제관 74-9261 수녀원 74-9262, 화산동 성당 국 변경-221국으로.
- 정친봉 신부(487-860)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노곡리 903 오투기성당(0357)535-1878.
Rev. Stephen Kim(김합칠 신부) Rev. Joseph Kim(김순태 신부)
SANCTUARIO DE SAN ANTONIO ST. MARY'S SEMINARY & UNIVERSITY
CHURCH P. O Box 2224 M. C. C 5400, ROLAND AVENUE
Forbes Park, Makati Metro Manila 3117 BALTIMORE, MARYLAND, 21210-1994
PHILIPPINES(Tel. 810-5782) U. S. A(Tel 301-433-8775)
Rev. Lawrence Pak(박기준 신부) Rev. Anthony Kim(김진룡 신부)
Collegio San Pietro JusTinusheim
Viale Mura Aurelie, 4 Freudenbergstr. 146
00152 Roma 8044-CH Zürich
ITALIA(Tel 06-637-2325) SWITZERLAND
- * 축! 영명: 성민첸시오(27일)-이병호 주교님. 성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28일)-안용기, 김종길, 박종상, 변영배, 박찬길, 경규봉, 이사정 신부님 축하합니다.



직 원 모 집

피정의 집에서 같이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인원: 2명
*대상: 35-50세 신자(여)
*할일: 내부 살림
*문의: (0652) 73-6600

천후피정의 집

버스기사 모집

1. 신자: 대형면허소지자, 유경험자
 2. 연령: 40세 ~ 55세
 3. 구비서류: 본당신부추천서, 면허증사본 1통, 자필이력서 1통
 4. 접수마감: 9월 30일까지
접수처: 천동성당 사무실
☎ 84-3222
- 전동 성심유치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친(정안드레아)상대 기도해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춘현, 정승현신부, 태현신부, 양현신부 올림

맥코이이온정수기

국내·외 최고판매의 (보건사회부허가)210호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
(주)모리아 크리스탈 전라사업본부 대표 서동주(스테파노) 경원동 전북대 치과대학 사거리 ☎ (0652) 86-1077, 82-8038 교우성심병원, 남·내·명계속모집, 수질검사사무

성심목공업사

성구·재대·강론대·제구장·긴의자 탁상·화분대·혼례용가구 맞춤전문
서 스테파노(오봉) 한 안나(은순)
전주 ☎ 77-1747

혼수 전문점

주단 · 침구 · 모시 · 삼베
깨끼한복 · 각종이불맞춤
부 인 주 단
김 한 중(오 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개인 지도식 교육
유지부한글터득 및 속셈숫자지도

관영재속셈학원

장 재 식(베 드로) 원 숙 영(가베리나)
우이동 우신APT 2구 백미역2층
☎ 76-130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 * 축: 주교님 영명축일(빈첸시오) 27일 영육간이 건강하심을 기도합니다. * 수재민돕기 2차헌금 있습니다. 1. 제대회 성지순례: 28일 9시30분 출발 여산경유 나바위. 2. 본당의 날 및 L, M 옥외행사: 10월 7일까지 회비-6,000원 함께 접수바랍니다. 3. 추석 위령 합동미사 접수: 본당미사- 새벽5시30분, 묘지에서 11시미사, 광소미사- 왕정리강당 9시30분. 4. 모임: 성가대 워레회: 25일 어머니미사 후, 기도회 미사 27일 저녁7시30분, 빈첸시오-28일 오전9시30분 ME: 1팀 27일 저녁8시 김지원 씨때. 5. 유아세례: 29일 오후2시30분 대부분 신청하여 접수하십시오. 7. 영화상영: 초미받은 사람들 27일 저녁7시30분. 8. 혼인강좌: 30일 9시30분 가톨릭센터 혼배자는 수료증제시 할것.**

☐ 지난주 봉헌금: 909,410원 ☐ 교무금: 540,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회갑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제대회 성지순례: 25일 여산.
3. 빈첸시오회: 27일 오전10:30.
4. 병자 봉성체: 28일 오전10:30.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5. 유아세례: 29일 오후7:00.
6. 김비비안나 수녀님 휴가: 24부터.
7. 밀알회: 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장수씨 도서87권, 잡지15권, 김영화씨 책 대금 20,000원 정동민씨 도서 감사드립니다. * 추석 합동미사 예물 접수: 오늘부터. 추석미사 안내: 새벽6시 오전10:30.

금주 전례: 해설-최옥상 ① 오장수 ② 정강선
 봉헌-오장수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 ① 오영열 ② 고봉림
 봉헌-오영열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04,980원 ☐ 교무금: 819,7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1.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미사시간 변경: 평일 저녁7:30.
3. 수재민을 위한 2차헌금: 오늘 미사중.
4. 성서읽기: 이사야31장~40장.
5. 금주 전례: 해설-이승복 독서 ① 김봉길 ② 최영숙
 봉헌-안복성, 양재철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영선 독서 ① 양대환 ② 구영순
 봉헌-유순천, 박귀철 씨 부부
6. 추석 합동 위령미사: 미사전 접수-각 구역장님.

☐ 지난주 봉헌금: 227,33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연중제25주일! (오늘 수재민을 위한 2차헌금 있음).**

1. 회의: 꾸리아-오늘 오후2시.
2. 말뚝: ① 어린이성가경연대회-9월23일(일) 오후1시 전주성심여교 강당. ② 추석 합동위령 미사-선영님을 위한 미사 예물(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③ 추석대축일 미사시간-10월3일(수) 오전10시30분 ④ 예비자 교리시간-매주일 공식미사 후(성인반) 매주일 오전9시(학생반) 짧은 인도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555,620원 ☐ 교무금: 536,000원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1. 추석 합동 미사예물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2. 성지순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청소년: 서완산동-1가 서편.
- * 사제관·수녀원 신속헌금 신입총액: 21,874,000원 입금: 14,075,000원.

☐ 지난주 봉헌금: 336,890원 ☐ 교무금: 301,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충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 성전보수헌금 바랍. * 수재민을 위한 2차헌금: 23일(오늘). 1.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2시. 2. 초등부 성가 경연대회: 오늘 오후5시, 성심여교 강당.**
3. 가정방문: 27일-서교3반.
 4. 울드레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재속 클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1시30분.
 6. 추석 합동미사 예물 접수: 10월 2일까지.
 7. 유치원 버스기사 모집: 나이 40세~55세, 유경험자(본당 신부님께 문의요망).
- * 금주보수비 헌금액: 2,604,200원 * 현재모금 총액: 155,354,220원
 * 금주보수비 신입액: 1,100,000원 * 현재신입 총액: 234,604,618원
 ☐ 지난주 봉헌금: 1,472,26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환

- * 추석 합동미사 예물 접수: 10월2일까지. 접수-사무실. * 신자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자분께 감사드립니다. * 어린이성가경연대회: 오늘 오후1시(성심여교 강당). * 유아세례: 30일(일) 오후3시, 신청서와 대부·모친정해서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1. 울드레아: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오늘 오후3시. 3. 중·고학생 예술의 밤: 29일(토) 저녁8시. 4. 성빈첸시오 주교님 영명축일: 27일(목) 영육간이 건강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5. 금주 전례: 박종구 복사-서영상, 이봉연
 봉헌-조 선 부부
 차주 전례: 김광택, 문치구 복사-이정분, 지봉호
- ☐ 지난주 봉헌금: 392,3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미사시간 변경안내: 화요일~토요일까지 저녁미사 시간을 오후7시30분으로 변경합니다(금요일 어머니미사도 저녁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 저희본당에 인도브력을 기증해 주신 신홍콘크리트 이교성(요셉)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3. 추석 합동미사 예물 접수: 9월30일(일)까지 접수해 주십시오. * 오늘 수재민돕기 2차헌금이 있습니다.
4. 금주 전례: 해설-장병준 독서·봉헌-이봉수 부부.
 차주 전례: 해설-최정순 독서·봉헌-이창욱 부부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 * 경축 성인드레아 김대건과 성마리오 정하삼과 동료순교자 대축일.**
1. 감사: 본당의 날 행사와 영명축일에 수고하신 분들 영적물질 예물 봉헌하신 분.
 2. 견진교리: 화요일 오후7:30. 3. 성서교리: 수(오후)2시, 7시 본당신부, 수(오후)2시 김이사벨라 수녀.
 4. 구역협의회 미사: 화-세경APT, 수-목화, 공작, 예그린, 목-상산교, 금-삼천동 주택지역.
 5. 본당신자 테니스대회: 30일(일) 오후1:30분, 장소-교육대학.
 6. 모임안내: ① 꾸리아(26일) 오전10시. ② 구역봉사자 모임(10.10) 오전10시30분. 7. 청소: 쌍용동, 서편 2단지.
- ☐ 지난주 봉헌금: 919,280원 ☐ 교무금: 413,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1. 바자회: 21(금)~24(월)까지. 특색: 1. 본당에서 직영-좋은 물건 싼값. 2. 농민회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2. 반회장 기도회 모임: 28(금) 어머니 미사후.
 3. 삼가리 공식미사: 28(금) 오후8:00.
 4. 유아세례: 29(토) 오후2:00.
 차주 모임: 꾸리아, 돌담회, 나눔의 헌금.
 금주 전례: 해설-강진상 독서 ① 이재진 ② 한숙자
 기도-김창남, 이은화
 차주 전례: 해설-김인규 독서 ① 채완병 ② 김순덕
 기도-김광년, 백명자
- ☐ 지난주 봉헌금: 652,000원 ☐ 교무금: 553,000원